〈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11)

공자가 말씀하였다. "질박한 바탕이 문채의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꾸밈이 바탕을 이기면 호화사치로우니, 꾸밈과 바탕이 잘 어우러진 다음에야 군자이다."(子曰 質勝文則野 文勝質則史 文質彬彬然後 君子) 〈『논어』「옹야雍也」 편16〉 '옹야'편 이름은 공자가 29살 연하인의 제자 중궁(仲弓, BC. 522~?, 이름은 염옹冉雍)을 불러서 "중궁(옹)은 임금 노릇을 하게 할만하다."(雍也, 可使南面)〈「옹야」 편1〉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내용이 중궁이 당시 나라 안의 인물들에 대한 평가를 공자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이어진다. 곧 인재등용이나 인사문제 자문을 구한 것이다.

(이에 이어서) 공자가 말씀하기를 "사람의 삶은 정직한 것인데, 정직하지 않고서도 살아있는 것은 다행히 죽음을 면한 것이다."(子曰 人之生也直 罔之生也 幸而免)〈「옹야」 편17〉

그런데 중궁에 대한 후세의 평가에서는 '덕망이 높고 어질었지만 말재주가 없었다.'고 한다. 공자는 출신성분보다도 '어진 이를 존경하고 인재등용에 있어서는 능력에 따라야한다(尊賢使能)' 자문한 것으로 나온다.

여기서 약 4년에 가까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과 원리 원칙적으로는 민주와 공정·공평 등 정의를 말하면서도 '문질빈빈'하지 못하였고, 청와대 비서관, 행정부 총리·장관·검찰 인사와 사법부 판사, 그리고 민주당과 야당 및 언론 가짜뉴스(거짓말)에 대한 언행일치와 단호한 적폐청산에는 그 정직(正直)의 부족함이 떠올랐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검찰과 언론 및 야당의 나라의 주인인 국·시민 속이는 '기망(欺罔)과 선택적 정의'는 비록 이번 4.7 보궐선거에 압승을 하게했지만…

대한민국에서 여·야당과 국민의 공복들과 사실과 진실에 바탕을 둔 보도보다도 불편부당하고 거짓(이른바 '가짜뉴스')을 말하는 언론은 다행히 현재 행운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래 역사(거울) 앞에서도 과연 그렇게 될까? 어리석은 자들은 '늑대소년' 우화를 보면서도 부끄러움과 성찰이 없다. 시대상황·정신과 사계절 변화·추이, 즉 인간과 자연의 변화이치도 모르는 '철부지(철不知)'들과 우둔하고 무식한 '천방지축(天方地軸)'들이 어찌 지혜와 두려움을 알 수가 있겠는가!

미국 북부 공업지대 값싼 노동력 확보를 위해 남부 농업지대 흑인 '노예해방'의 선전의 결과로 북쪽으로 목숨을 걸고 남부를 탈출한 북부로 간 약 400만의 흑인 노예들은 많은 숫자가 북군의 군대에 편입되어 싸우고, 전쟁 후에 공업 노동자로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갔다. 하지만 150여년이 지난 아직도 그들은 백인 특히 WASP(White Anglo-Saxon Protestant)출신들에게서 진정한 자유를 얻어왔었는가? 현재 극소수 상위계층 흑인들을 제외한 그들의 범죄율은 평균 20%에 달하고 있다.

다행히 민주당 B. 오바마 흑백 혼혈인이 44대 대통령이 되어 희망을 가졌지만, 다시 45대 공화당 D. 트럼프 대통령을 거쳐 46대 민주당 J.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민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미국식 선거제도 방식으로 당선되었다. 그렇지만 트럼프의 COVID-19에 대한 방역실패와 이에 대한 중국의 책임론과 언론·매스컴의 왜곡과 호도된 선전으로 흑백갈등이 흑황(黑黃 ; 중국인·한국인 등 아시아계) 갈등(건장한 흑인들이 아이아계 노약자 여성노인을 무차별 폭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극심한 빈부격차와 천문학적 재정적자(약 2京 5천 兆원)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16대 대통령 A. 링컨(1809~1865)이 남북전쟁 중 북군 전승지 펜실베니아 케티즈버그에서 1863.11.19에 승리감에 들떠 연설한 'by·of·for the people'에 모든 민주주의의 기준을 맞춰왔다. 그런데 '국민을 위한(for) 정부'가 아니라면 '국민의(of) 정부'나 '국민에 의한(by) 정부'도 일찍이 프랑스 계몽주의 학파 정치철학자인 S-L. de S. 몽테스키외(1689~1755)가 영국의 선거 실시 초기의 모습을 보고 개탄한 바,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떨어지는 순간 다시 노예로 되돌아가는 모두 사기놀음에 불과'할 지도 모른다. 과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2항에 국민주권의 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지만, 왜 국민이 아직도 정치의 주체가 아니라 정치의 대상(객체)으로 전락되고 있는 근본적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유교 민본 정치사상과 관련하여, 그 현대적 가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서양 근세 절대주의 왕조들에서 왕권신수설(王權神授說 ; 프랑스 Louis XIV세(1638~1715); "짐이 곧 국가〈C'est État C'est Moi〉"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왕의 권력은 하느님이 부여한 것으로 백성과는 무관하게 생각함)에서 보이는 [신神 〉 왕=국가 〉 민(民;백성;인민;국민;민중)]의 정치철학 사상론의 시대를 지나 이른바 그들이 말하는 '근대 민주주의'가 형성되는 사상적 기반은 과연 무엇인가도 함께 의문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 전국시대 도가의 장자(莊子, BC.369~286, 이름은 주周)는 '부나 명예 그리고 영광스런 삶과 죽음마저도 아예 웃기는 짓'(『장자』)이라고 타매(唾罵 ; 침 뱉으며 욕함)하기 까지 하였다. 나이가 늙어지면 사람이 욕심을 버리고 형제자매와 친구 이웃들과 서로 나누고 사회에 기부하며 춥고 배고픈 이들과 이 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가면 행복해진다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

부호장공파종회 회장과 원로회원 간담회 가져

부호장공파종회(회장 권주연)는 회원 화목과 단합을 위하여 회장과 원로회원들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권주연 신임 7대 파종회장이 마련한 것으로 신임 회장이 되면 역대 회장과 원로 회원들을 초청, 점심을 함께하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권주연 신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진작 자리를 마련하여 역대 회장과 원로회원들에게 파종회 발전을 위해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미루어 오다가 오늘 에서야 제한적이지만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파종회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는데 주요 안건은 채택해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권 회장은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에 있는 안동권씨대종회 소유 시조 태사공 권행(權幸) 묘(墓) 1기(基)를 안동시에 문화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 최근 안동시로부터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음을 통보해왔다고 보고했다.

보도부장 권영건

상주상공회의소 '제4대 권택형 회장' 취임

권택형(63) 덕산지에스 회장이 경북 상주상공회의소 제4대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취임식은 14일 오후 2시 상주실내체육관(신관)에서 정부의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임이자 국회의원, 강영석 상주시장, 임부기 시의회 부의장과 의원, 관내 기관장,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다.

신임 권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신뢰받는 상주상의, 자부심을 갖는 상주상의, 신명나는 상주상의를 만들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해 상주시민상을 수상했으며, 보호관찰위원 상주보호관찰소협의회 회장, 대한적십자사 경북지구 상임위원 등을 맡고 있다. 부인 조명순 여사와 슬하에 1남 1녀를 뒀다.

창간호 등 495건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지난 3월 10일 고 권오선 고문이 소장하고 있던 종보를 인수하여 5월 11일 안동권씨 종보가 영구보존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했다. 납본은 총 495건이다.

이로써 안동권씨 종보는 창간호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대출하여 볼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1993년 2월호부터 보관중이었다.

창간호(1974.12.1.)부터 1993년 1월호까지는 납본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었기에 창간호부터 1993년 1월호까지는 각 2부씩, 1999년 7월호(289호)에서 2006년 12월호(378호)까지는 각 1부씩, 2008년 7월호(397호)는 1부, 2012년 3월호(441호)는 1부, 1983년 11월 17일에 발행된 호외는 2부를 각각 납본했다.

이외에 1975년 1월호(2호)와 1975년 3월호(4호), 1999년 1월호(199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 2부가 보관되고 있어야 하나 각 1부씩만을 보관 중이어서 각 1부씩을 더 납본해서 해당 종보도 2부씩 보관하도록 하였다.

1989년 3월에 발행된 165호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1부도 보관하고 있지 않음도 확인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광고를 통해 해당 종보를 기증받을 계획이다. 족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

편집국장 권행완

훈훈한 미담

권혁진씨 조혈모세포 기증, 백혈병 환자에게 희망 선물

코로나19 장기화로 각박해진 세상에 백혈병 환자를 돕기 위해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경산시 공무원의 훈훈한 미담이 전해져 감동을 주고 있다. 주인공은 경산시 여성가족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권혁준씨로 평소 어렵고 힘든 시민들의 입장을 생각하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친절을 몸소 실천하는 공무원으로 시청 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

혁진씨는 좌윤공파 36세로 부친 권오송의 3남 2녀 중 막내로 고향 김천의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다.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일이 하고 싶어 대구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다.

2012년 대학교 재학 시절 헌혈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난치병 혈액을 관리하는 조혈모세포은행협회를 알게 돼 회원으로 가입했고, 그동안 몇 차례 혈장을 기증했는데, 이번에는 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애타게 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는다고 하여 기쁘게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이틀간 입원해 백혈병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 기증 시술을 받았다. 기증이 결정된 후 두려움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백혈병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음에 제가 더 행복했고, 기증받으신 분도 하루빨리 완쾌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조혈모세포 기증을 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드리고, 조혈모세포 기증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환우들이 건강과 희망을 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망을 밝혔다.

한청타임즈 권성옥 기자 aafa2011@daum.net

100만 족친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지난 4월 5일 봉행한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추향제에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辛丑年 春享 獻誠金

番號	姓名 및 團體	金額(원)	地域	備考	番號	姓名 및 團體	金額(원)	地域	備考
1	權 赫 寅	1,000,000	大邱	始祖所 首任	19	權 赫 昌	100,000	大邱	僕射公派
2	權 丙 根	500,000	陜川	郎中公 首任	20	權 赫 武	100,000	大邱	雲谷書院
3	參議公派宗會	300,000	大田	理事長:權東遠	21	權 寧 華	100,000	安東	僕射公派
4	安東권사모	300,000	安東	會長:權奇秀	22	權 重 守	100,000	榮州	齋有司
5	僕射公派宗會	200,000	安東	會長:權奇浩	23	權 五 福	100,000	大邱	齋有司
6	檢校公派宗會	200,000	榮州	會長:權武倬	24	權 赫 模	100,000	安東	齋有司
7	正朝公派宗會	200,000	安東	會長:權榮澤	25	權 奇 卓	100,000	安東	齋有司
8	佐尹公派宗會	200,000	浦港	會長:權伍信	26	權 漢 旭	100,000	大邱	齋有司
9	安東宗親會	200,000	安東	會長:權肅東	27	權 玹	100,000	安東	齋有司
10	大田宗親會	200,000	大田	會長:權容基	28	權 容 德	100,000	安東	齋有司
11	陵 谷 會	200,000	安東	會長:權奇亨	29	權 純 鐘	100,000	安東	齋有司
12	權 寧 鐵	200,000	安東	農協티엠알 代表	30	權 奇 鎬	100,000	安東	齋有司
13	樞密公派宗會	100,000	서울	會長:權五敦	31	權 正 圭	50,000	安東	齋有司
14	副正公派宗會	100,000	安東	會長:權寧度	32	權 泰 煥	50,000	楊州	樞密公派
15	安東大瓢門中	100,000	安東	僕射公派	33	權 甲 鉉	50,000	榮州	郎中公 祝
16	權 宙 衍	100,000	安東	前 安東宗親會長	34	權 寧 福	50,000	서울	佐尹公派
17	權 寧 勳	100,000	서울	漢醫院長	35	雲谷書院		경주	대구포 大1尾
18	權 泰 亨	100,000	昌原	馬昌宗親會長	합계		5,700,000		대구포 大1尾

안동권씨 대종회